



원청교섭

비긴즈

2026-1호

진짜 사장을 찾아서

발행일 2026.7.22.(수) | 발행처 금속노조 원청교섭 투쟁본부 | 발행인 박상만 금속노조 위원장 | 편집 정책실 ☎02-2670-9502 | SNS 🔍 금속노조

"포스코 원청 나와라"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쟁의권 확보

중앙노동위원회가 14일 포스코 원하청 노사의 올해 단체교섭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이번 중노위 조정 중지로 포스코 원청에 대한 쟁의권을 갖게 됐다. '원하청 노동쟁의 조정사건 불성립'은 지난 2일 한화오션에 이어 포스코가 두 번째다.

한편, 16일 포스코 사내하청노동자들이 포스코 원청을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포스코가 직접고용 대상에서 제외한 일부 2차 하청 노동자들에 대해 대법원이 처음으로 불법파견을 인정했다.

개정 노조법 부정? 울산지방노동위원회 현대차 원청 편들기

울산지노위는 지난달 15일 금속노조가 현대차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한 달 뒤인 7월 14일, 울산지노위는 무논리·무개념으로 일관한 결정문을 내놓았다.

울산지노위는 원청 지배력을 명확히 확인해 놓고선, 금속노조 요구 대부분의 교섭 의제를 부인했다. 판매 대리점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마저 부정했다. 근거도 없이, 무조건 '안 돼'다. 명백한 증거 409개를 냈는데도, 증거가 부족하다니! 울산지노위원장과 이 사건 3명 공익위원은 자격이 없다.

금속노조 하반기 원청교섭 돌파한다



금속노조는 7월 8일 '원청교섭 쟁취 결의' 기자회견을 열고, '교섭 불응' 원청기업을 규탄했다.

같은 날 '원청교섭 투쟁본부 대표자회의'를 열어 올 하반기 원청교섭 투쟁방향과 세부 계획을 논의했다. 현재 중앙집행위원회가 토론을 이어 나가고 있다. 진행 중인 '원청교섭 조속 개시 촉구' 조합원 온라인 인증샷(공문 참조)은 7월까지 계속된다.

“원청교섭 쟁취, 비정규직 차별 철폐로 간다”



오세일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장

굳게 닫힌 현대중공업 원청교섭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는 3월 10일 HD현대중공업 원청에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원청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붙었고, 원·하청 노사는 원청교섭 개시를 위한 절차를 3월에 모두 마쳤습니다. 하지만 8월을 향해 가는 현재 시점에도 현대중공업 원청교섭 테이블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몇 달째 '교섭 원칙' 공회전... 현대중공업 원청의 교섭 지연

원청은 사내하청지회와의 실무협의에서는 물론이고, 언론에도 원청 교섭 의지를 계속 밝힙니다.

실상은 교섭원칙 논의 공방으로 시간만 흘러갑니다. 원청은 단체교섭을 열려면 먼저 교섭 의제를 확정해야 한다는 말을 무한 반복합니다. 결과적으로 원청의 교섭 지연, 교섭 거부입니다.

사용자 권한과 책임의 일치!

현중사내하청지회는 지난해 노조법 개정 직후부터 하청노동자들 바람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섭을 통해 원청 사용자 책임을 제대로 지게 하겠다", "금속노조와 함께 정당한 노동의 대가 받고, 단체협약도 만들자" 외치며 하청노동자 노조 가입을 조직 중입니다.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위해 지회는 원청·하청·이주 노동자 차별 말고 귀향비·휴가비·연말성과금·격려금 등을 동일하게 지급할 것을 몰해 원청교섭 요구에 넣었습니다.

이주노동자 밥값 뺏더니, 이젠 기본급 삭감까지

최근 이주노동자 노조 가입이 이어집니다. 그동안 현대중공업 원청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E-7-3)에게 식비를 따로 받았습니다. 원청 계약직인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연말성과금도 받지 못합니다. 그것도 모자라 이제 원청은 '직접고용' 이주노동자 기본급을 깎고 성과 차등 임금제까지 도입하겠다고 합니다.

결국 지난달 26일과 이달 13일 대규모 이주노동자대회가 울산에서 두 차례 열렸습니다. 노동자들 불만을 무마시키려 원청은 2023년 1월 이후 식비공제액을 반환했지만, 이주노동자 분노와 투쟁 결의는 금속노조로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하자!

현중사내하청지회는 현대중공업 모든 노동자와 함께 2026년 원청교섭을 쟁취할 것입니다. 원청·하청, 국적 구분 없이 현대중공업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확대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겠습니다. 원청의 교섭 거부와 하청·이주노동자 차별 행태가 만만찮지만, 단결하고 승리하겠습니다. 원청교섭 쟁취를 위해 애쓰시는 금속노조 동지들, 모두 힘냅시다!